

중대고비 맞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여야 대표 협상 결렬...청와대 회동도 무산

박 대통령 오늘 대국민담화 국정공백 사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권과 야당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은 무산됐으며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이날 오전 10시 협상도 결렬됐다.

이에 박 대통령은 4일 전격적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 개편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정 사안실상 울스톱된 데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하고 현 상황과 향후 대처방향을 밝힌다는 것이다.

이날까지도 청와대와 여당은 핵심 쟁점인 케이블 방송과 IPTV 등 이른바 비비도 방송 관련 업무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에 남겨두자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극적인 타협이 없으면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착상태인 협상=민주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 불참의사를 공식 통보했

다고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담제안 사실을 밝혔다.

이 수석은 춘추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계속 회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면서도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국정 현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아무런 명분도 주지않고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또 협상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으나 청와대와 여당에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급한 청와대=이날 청와대는 이른 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휴일인 이날 오전 7시 출입기자 전원에게 김행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회견 내용은 국회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인 '미

래창조과학부 관련'이라고 짧게 명시했다. 대변인실과 춘추관 소속 행정관들은 회견 준비를 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수석비서관들도 청와대 입장을 정리하느라 전날 밤 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장에는 김 대변인뿐만 아니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최순홍 미래전략수석도 참석해 새 정부가 마련한 원인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회견 내용은 사실상 이를 전 호소문 발표의 연장선상이라는 측면에서 '야당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회견은 오전 10시 국회에

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 직전에 이뤄졌다.

또한,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의 5인 회동이 야당측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자 이남기 홍보수석이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거주춤 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박기춘(오른쪽)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비공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행뉴스

"5·18실체 명확하지 않다"

조운선 내정자 발언 논란

인재근 "민주주의 역사·정신 폄해, 국가기관 수장 자격 있나"

조운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아직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조운선 의원은 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9년 3월 27일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조 내정자의 5·18에 대한 발언 내용을 전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인권은 광주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꽃 피었다"는 조 내정자의 대변인 시절(2008년) 논평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광주에서 대학교수로 일하시던 한 친척이 5·18 직후 집에 오셨는데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이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직

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뜻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사법적 평가가 이뤄졌고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탈취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돼 있다"며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폄해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 1급 비서관 임명 왜 늦어지나

국민소통 비서관 등 6~7명 미정 자기사람 심기 힘겨루기 '잠음'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비서관(1급) 임명이 계속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40명 가운데 6명의 인선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정무수석실의 국민소통, 민정수석실 민정과 민원, 교육문화수석실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 고용복지수석실의 여성가족 등 비서관 6~7명이 미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의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로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 직속 9명의 수석비서관 아래에 분야별 2~5명씩 배치된다. 해당 비서관이 공석으로 남는 분야는 정책이나 현안 점검이 어려워 국정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비서관은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인선할 수 있다. 청와대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게 아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측은 출범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상의 책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인선 지연 배경을 설명한다.

하지만, 인선이 늦어지다 보니 여러 '잠음'도 들린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실제 한 힘겨루기 설부터 비서관에 내정된 인사까지 실정 민정과 민원, 교육문화수석실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 고용복지수석실의 여성가족 등 비서관 6~7명이 미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 임명된 비서관들의 업무를 보좌할 선임행정관과 행정관들도 속속 임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등에 김희선 의원실의 응준호 보좌관을 비롯해 오도성·이양수·김기현·김춘식·노재국·이현진·정호훈·이태호 등 친박(親朴) 전·현직 보좌관들이 행정관으로 대거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도 박근혜가 행정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사청문회 재개 6명의 내정자도 순탄할까

방하남·조운선, 세금 납부 기피 의혹 류길재·이동필, 논문 표절 논란 제기

국회가 4일부터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재개, 청문회 정국이 좀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4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와 조운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6일에는 류길재 통일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로써 새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지난주 6개 부처를 포함해 금주까지 12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다.

야당은 이들 내정자가 세금 탈루와 병역 기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 을 바르다고 있다.

방하남 내정자는 증여세 납부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방 내정자는 2009년 12월 22일 해남

군 해리 일대 건물을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1억7300여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인선 발표가 나 후 여야 증여세 2647만3100원을 납부했다. 방 내정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받고 있다.

2011년 한국사회학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1년 전 방 내정자가 월간 노동리뷰에 발표한 논문과 같다는 것이다.

또 노동연구원 재직 중 승인 없이 연구용역 3건과 대외 강의 4건으로

201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운선 내정자의 경우 조 내정자 부부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세금을 몰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씨티은행 부행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정치 활동과 임박모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류길재 내정자와 이동필 내정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으며 진영 내정자는 2008년 정치 후원금으로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은 것이 거론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내정자는 지난 19일 뒤늦게 소득세를 납부했다.

서승환 내정자는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새 정부에서 소관 부처가 신설되거나 기능 개편 등이 이뤄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중환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식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 4명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인

사 청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현안할 폭침 다음날 골프를 쳤다는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야당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김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야당이 청문회를 수용,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함으로써 낙마를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등 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유정복·유진룡·윤병세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정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 17(금) (총 90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 ~ 17:00
 - 야간반 18:00 ~ 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한자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 원룸, 투룸, 스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역실 2개 대출 492천 매도기 99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2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기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6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매기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참고용도로 적합
 ■ 비어있던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정성군 황룡면, 장성군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등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등 심상사건내편)

투자 하실 분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 1억원 이상
 ▶기간 : 1년정도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 NPL과 특수물건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특징 : 배우면서 투자가능
 1인1물건 낙찰보장
 ▶수강료 : 550만원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